

나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무료지원 산불 예방 총력

12월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파쇄물 퇴비 활용 자연순환 농법 독려
봄철 3~4월 34농가·16.6ha 파쇄 성과
농번기 종료 시기 11~12월 집중 시행

나주시가 영농부산물 파쇄 무료 지원을 통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운영을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논, 밭,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파쇄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순환 농법 지원사업이다.

국내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22년 산불통계연보 집계 결과 영



나주시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재개한다.

나주시 제공

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약 12.6%를 차지하며 이는 입산자 실화·33.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원인이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상반기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월~4월 운영돼 34농가 16.6ha를 파쇄했으며 하반기에는 농번기가 종료되는 11월~12월 집중 추진한다.

하반기 파쇄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파쇄를 위해 농가에서는 영농부산물을 사전 수거하고 파쇄 저해물(고춧대 비닐·노끈 등)을 제거해야 파쇄작업이 진행된다. 탄저병, 역병, 과수화상병 발생 등 전염가능성 지역 및 시설원에 작물은 파쇄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준옥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은 고품화된 농촌에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산불 예방과 자연순환 농법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곡성군새마을회, 동절기 대비

곡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곡성군민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교육과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크게 기본교육과 안전교육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시간 준수, 근무일지 작성법, 부정수급 예방 등 일자리사업 참여 기본 지침을 비롯해 생활안전, 자연재난 대비, 교통안전, 보건·산재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교육은 참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했으며 쉽고 명확한 설명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또한 참여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켰다.

교육과 함께 실시된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는 향후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종 회장은 "현재까지 무사고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감사드리며, 동절기를 맞아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명 기자

영광군, 방역상황 점검 나섰다 고병원성 AI 유입 집중 차단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광군이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세일 군수는 지역 내 AI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영광군은 2014년 발생 이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10년 연속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광IC에서 영광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우평리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내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 등에 축산차량 이동 시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여 농장 방문 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주 자율 방역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함평군, 12월 15일까지

함평군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발대식을 28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관계자 등 44명이 참석해 산불 없는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예방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산림공원과 읍·면 9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하여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연료 물질 제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산불 예방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대원들의 안전이다"며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에 민·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관계자가 지난 25~26일 창평면에서 열린 전통음식축제장에서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담양군이 지난 25일과 26일 창평면에서 열린 전통음식축제에서 담양소방서와 함께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실은 안전체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3년 본격 시행됐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은 교통안전과 소방

안전 2개 분야의 체험이 운영됐으며 소화기 체험 및 3차원(3D) 교통안전 프로그램 시청 등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에 대처하는 데 이번 안전체험교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입점상가 대상 인구늘리기 캠페인

주소이전 독려·지원 혜택 홍보

담양군은 지난 25일 청년정책협의체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일대를 돌며 '담양애(愛) 주소갯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과 청년정책협의체는 메타프로방스 내 입점 상가를 방문해 실제 담양에 거주하지만, 관내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주소 옮기기를 독려하고 전입 시 주어지는 지원 혜택에 대해 홍보했다.

이밖에 군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담양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메타프로방스 일대를 돌며 '담양애(愛) 주소갯기' 캠페인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1사 1담당제'를 실시해 지역 거주 근로자가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시책으로 관내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부대원 주거 관리비 지원, 공간 꾸러미 지원 사업 등 전입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전입시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대단한 놀이판-오늘의 광대' 공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영광군은 오는 11월 7일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대단한 놀이판-오늘의 광대'를 공연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인집단 아라한의 '대단한 놀이판-오늘의 광대'는 무형문화유산 활용 우수공연 콘텐츠 선정작으로 100세를 맞이한 2인의 사자탈꾼 유랑기와 긴 세월동안 만났던 전국 팔도의 재주꾼들이 한데 모여 추억을 회상하며 잔치를 나누는 감동의 이야기이다.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된 남사당놀이 중 살판, 버나, 풍물놀이, 줄타기와 죽방울놀이, 사자탈춤 등 전통예술 중 '기에'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종목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영광군과 예인집단 아라한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코너와 네이버밴드(http://band.us/#!/band/5015660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광=김도윤 기자